



중국 의료비 크라우드 펀딩 사례

최예린 연구원

중국의 핀테크 기업 Ant Financial은 2018년 10월에 상호보호(Xiang Hu Bao)라는 의료비 크라우드 펀딩 상품을 출시하였는데, 현재까지 약 5,700만 명의 가입자를 유치하였음. 상호보호는 전통적인 보험상품과 다르게 기금을 미리 적립하지 않으며, 가입자의 상해·질병 발생 시 심사를 통해 지급되는 치료비와 관리비(8% 수준)를 합한 금액을 전체 가입자 수로 균일하게 나누어 분담함. 상호보호가 단기간에 많은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입이 쉽고 분담금이 저렴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특히 기존 보험상품을 가입할 여력이 없었던 계층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음. 한편, 상호보호와 같은 의료비 크라우드 펀딩은 가입자 보호가 취약하기 때문에 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중국의 핀테크 기업 Ant Financial은 2018년 10월에 상호보호(Xiang Hu Bao)라는 의료비 크라우드 펀딩 상품을 출시하였는데, 현재까지 약 5,700만 명의 가입자를 유치하였음¹⁾

- 상호보호는 전통적인 보험상품과 다르게 기금을 미리 적립하지 않으며, 가입자의 상해·질병 발생 시 심사를 통해 지급되는 치료비와 관리비(8% 수준)를 합한 금액을 전체 가입자 수로 균일하게 나누어 분담함²⁾
 - 가입자는 100가지 주요 상해·질병(암 및 마비 등 포함)에 대해 일시불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음
 - 가입자는 한 달에 두 번(14일, 28일) 알리페이를 통해 분담금을 지불함
 - 의료비의 수령 또한 알리페이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최초 90일은 면책기간으로, 의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

■ 상호보호가 단기간에 많은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입이 쉽고 분담금이 저렴하기 때문으로 보임

- 상호보호는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비해 가입이 쉬움
 - 상품의 가입은 스마트폰의 알리페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음
 - 상호보호의 가입 조건은, ① 알리페이 회원이며, ② Sesame Credit³⁾ 점수 600점 이상, ③ 생후 30일에서

1) WSJ(2019. 4. 20), "Can't Afford Surgery? In China, Millions Chip in Half a Penny to Cover You"

2) TechNode(2019. 5. 7), "Healthcare in China gets helping hand from 'mutual aid' online platforms"

59세⁴⁾임

- 많은 가입자 확보로 인해 한 달에 두 번씩 납입하는 분담금은 대개 0.1위안 이하로 알려짐
-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상호보호는 특히 기존 보험상품을 가입할 여력이 없었던 계층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음⁵⁾
- 상호보호 가입자의 대다수는 주정부의 의료 서비스⁶⁾를 받을 수 없거나 일반적인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었던 외국인 노동자(47%)와 농촌지역 주민(31%)임⁷⁾
 - 상호보호 이용자들은 분담금이 일반 보험료에 비해 저렴하고 가입이 쉬운 장점 때문에 보험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용자의 일부는 상호보호 이외의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가입하지 않음
 - Ant Financial은 향후 2년내 중국 인구의 약 20%인 3억 명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
- 한편, 상호보호와 같은 의료비 크라우드 펀딩은 가입자 보호가 취약하기 때문에 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크라우드 펀딩은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기에 핀테크 기업의 재정이 악화될 경우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크라우드 펀딩은 가입자 수가 많기에 문제 발생 시 국가적으로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자 보호 대책을 사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kiri**

3) Ant Financial이 개발한 신용평가로, 600점은 Sesame Credit 시스템에 처음 참가할 때 주어지는 점수임

4) Insurance Journal(2019. 4. 11), "Ant Financial Aims to Disrupt Health Insurance with New Chinese Health 'Collective'"

5) WSJ(2019. 4. 20), "Can't Afford Surgery? In China, Millions Chip in Half a Penny to Cover You"

6) 의료비의 60~90%를 배상하지만 국립 병원에서만 기초적인 치료만 보장하거나, 가장 흔한 질병만 보장함

7) PYMNTS(2019. 4. 12), "Ant Financial's Health Plan Has More Than 50M Participants"